

몸소 지켜주신 원아들의 잠시간

2015년 새해를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곳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오늘 정을 그리워하는 원아들과 양력설을 함께 쇠려고 신년사를 한 다음 제일먼저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에 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육아원을 돌아보신 후 애육원으로 향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낮은2반에 들어서시였을 때 그곳에서는 교양원의 풍금반주에 맞추어 원아들이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세상에 돌도 없는 훌륭한 궁전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세상에 부러움없이 행복동으로 자라는 자기들의 기쁨넘친 생활을 담아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만시름을 잊으신듯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문득 애육원원장에게 지금 자는 시간 같은데 아이들을 재워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원장이 일없다고, 아버지원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원아들이 어떻게 잘수 있겠는가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자신께서 왔다고 잠을 재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사려깊이 말씀하시였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우러르는 원아들을 사랑스럽게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애육원원장에게 그러지 말고 빨리 잠을 자라고 하여야 하겠다고, 원아들이 요람에서 잠자는 모습도 보고싶다고 하시며 잠자는 방으로 향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원아들은 행복의 요람에 들게 되었다.

원아들이 포근한 이불에 싸여 눈을 감고 새근새근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신듯 미소를 지으시였다.